공의와 사랑을 향한 몸부림

(서울남연회 사태 관련 감게 글 및 댓글 모음 제5집)

(2024.9.6 - 9.26)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전15:34)

서울남연회 강서동지방 순종교회
장 광 호 목사

제36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당선 공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아래와 같이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감독회장 당선자

기호	성명	연회	지방회	교회
3	김정석	서울남	강남	광림

◎ 감독 당선자

연회	기호	성명	지방회	교회
서울	2	김성복	성동광진	꽃재
서울남	2	유병용	송파	브니엘
중부	1	황규진	인천서	영종중앙
경기	1	서인석	수원권선서	고색중앙
중앙	3	김종필	이천북	이천중앙
동부	2	우광성	원주동	삼천
충북	1	백종준	영동	영동
남부	2	이웅천	대전둔산	둔산성광
충청	2	박인호	대천서	대천제일
삼남	1	박준선	울산	울산반석
호남특별	1	안효군	전북서남	정읍은혜
미주자치		권덕이	미동부	사랑의

2024. 9. 26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 병 원

목 차

..... 제 18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운동기간(9.6-9.26) .....

2024-09-06 17:08 조회 516 #1. 서울남연회 감독후보자 두 분에게 묻습니다. :
서을남연회 감신 M.Div 서울남연회 동문 일동 / 2
2024-09-07 08:48 조회 719 #2. 답변서(서울남연회 감독후보들) : 장광호 / 3
2024-09-07 16:21 조회 278 선거 관전평 : 이현석 / 5
2024-09-07 18:44 조회 733 #3. 조장철 목사님 입장 철회 : 장광호 / 6
2024-09-08 07:19 조회 567 #4. 요구합니다.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님들께 : 장광호 / 7

2024-09-09 05:01 조회 411 #5. 선교를 방해하는 그대들은 누구신가? : 장광호 / 9
2024-09-09 18:53 조회 185 장광호 목사 글에 붙여 : 신동수 / 12
2024-09-10 07:44 조회 547 #6. 이번에도 눈감고 싶으신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여. : 장광호 / 13
2024-09-11 07:05 조회 395 #7. 선교국은 그 때 그 영상을 아십니까?
(MBC PD수첩 영상) : 장광호 / 17
2024-09-11 11:53 조회 312 자기 영혼의 때(時間)를 위하여... : 오재영 / 20

2024-09-12 08:59 조회 420 #8,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장광호 / 23
2024-09-13 03:10 조회 335 #9. 뱀장어, 고양이 -> 아나콘다, 대호 : 장광호 / 26
2024-09-14 07:26 조회 168 간음을 하지 말라 : 함창석 / 31
2024-09-14 07:35 조회 396 #10. 하락한 감리교회 브랜드 가치는 얼마? : 장광호 / 33
2024-09-19 15:40 조회 488 #11. 입장문(감독선거 관련 감신 M.Div 서울남연회 회원) / 36

2024-09-19 18:27 조회 633 #12. 감독복권 추진설의 문제점 / 37
2024-09-22 20:43 조회 355 감독, 감독회장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 오재영 / 42
2024-09-23 19:44 조회 229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 이현석 / 45

..... 제 18대 서울남연회 감독 유병용 목사 당선(9.26) .....

편집 후기 / 47

#1. 서울남연회 감독후보자 두 분에게 묻습니다. : 서을남연회 감신 M.Div 서울남연회 동문 일동

(2024-09-06 17:08 조회 516)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들께 묻습니다.

우리 서울남연회 선거권자들은 이번 2024년 9월 26일 실시되는 감독 선거에서 18대 감독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19대 감독을 뽑는 겁니까?
* 14대 : 도준순 목사, 15대 : 최현규 목사, 16대 : 김정석 목사, 17대 감독 : 채성기 감독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혼탁한 선거운동 가운데 난무하는 유언비어들 중에서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전** 목사의 감독 복권 문제가 선거판을 뒤흔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감독직에 당선된 후 여론과 재판 판결 일정에 몰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80일만에 사퇴한 전** 목사를 서울남연회 전직 감독으로 인정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2019년 감독 보궐선거로 인해 이미 다 정리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와 장로들은 전** 목사를 여전히 전직 감독 예우는 물론, 심지어 법적으로 이미 감독으로 정리되었다고까지 주장하는 가운데, 전** 목사 역시 전직 감독이란 이름 아래 출마 후보를 불러 모임 참석자들에게 인사시키는 활동까지 했습니다.

또한 양쪽 다 복권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거짓프레임을 자신들에게 씌우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까지 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전** 목사는 당연히 서울남연회 전직 감독인가?
2. 당선된다면 전** 목사의 감독직 복권을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누가 감독에 당선되든 상관없이 당선자는 그 지지자들로부터 전** 목사가 서울남연회 전직 감독으로 복권되도록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남연회 역사와 감독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데 직결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신M.Div 서울남연회 동문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2018~2019년에 발생한 사태가 진행될 때 먼저 성명서를 내고 그의 부당성을 제기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복권의 문제 역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문제에 관한 두 분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4. 9. 6.

감신M.Div 동문회 서울남연회원 일동.

#2. 답변서(서울남연회 감독후보들) : 장광호

(2024-09-07 08:48 조회 719)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님들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두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명확한 답변을 들으니 안심하고 18대 감독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열심히 하셔서 뜻 하신 바를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7

감신 M.div 서울남연회원 일동.

감신 M.div 동문회 서울남연회 원들의 질의 공개 답변서

1.전준구 목사는 당연히 서울남연회 전직 감독인가?

감리교회원이면 누구나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교회법에 의해서 정리된 사안으로, 전직 감독에 대한 이론이나 예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선되어 감독직을 수행하면서도 행정수반자로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으로 철저하게 법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당선된다면 전준구 목사의 감독직 복권을 추진할 것인가?

유병용 목사는 전준구 목사의 감독직 복권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야합니다. 감독직 복권이나 역사적인 회귀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해되는 상식과 공정을 가지고 깨끗한 행정을 주도하는 서울남연회가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6일
유 병용 목사

1/1

.....

임재학 2024-09-07 15:18

질문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감독후보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광호 2024-09-08 07:51

함께 올렸던 조장철 목사님 명의의 동일한 답변서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거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재학 2024-09-08 20:49

저도 수정합니다.
답변해주신 유병용 후보님 감사합니다.
조장철 후보님, 철회한 답변서 다시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 관전평 : 이현석

(2024-09-07 16:21 조회 278)

1. 교단은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나..

그럴 일이었으면, 애초에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다.
現감독회장과 現행기실장의 개인역량에 대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2. 교회재산과 유지재단에 관한 가처분 소승의 내용에 관하여..

내가 판사이면,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변호사이면, 다른 결과를 대비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장정의 개념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장정이 체계로의 완전성에 결함이 있고, 사회일반의 규범과 충돌하므로,
어떤 지점에 어떤 뉘앙스가 존재한다.

3. 학연 구성상 '서울'이 과반이 넘는다.

따라서 감독회장은, '서울'이 정리하면 끝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

지방은 남이 할 수도 있지만, 서울은 자기만 해야 하나? ?

남부연회와 서울연회의 선거결과는, 어떤 해석을 낳을 것이다.

4. 장정유권해석은..

"해석" 이라는 말 보다는 "유권"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
권한 있는 해석은, 권한이 있는 기관만 가능하므로, 장유 또는 재판부의 몫이다.
유지될 수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은퇴하신 오목사님은.. 아무 권한이 없으시므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5. 얼마 전 어느 단체의 재판부 까는 의견서를 읽어보았다..
뭐랄까.. 판결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와 다른 것 같다.
사회재판부는,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일'과 '권징 재판'은 관여하지 않는 태도이다.
재산문제는 다르다..

'권력있는 측'의 '선거유권 해석'과 '선거사무'가, 사회법에 의해 뒤집혔던 연유는 거기에 있다.

.....

엄재규 2024-09-08 08:08

감리회에 동문회와 종교 동업자를 챙기는 분은 많은데,
감리회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는 드뭅니다.

#3. 조장철 목사님 입장 철회 : 장광호

(2024-09-07 18:44 조회 733)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자 조장철 목사님께서

감신 M.div 서울남연회 동문들의 전** 목사의 감독직 인정 및 당선후 복권 문제와 관련한 답변서(#13933 서울남연회감독후보들)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만나서 개별적으로 밝히겠으나, 문서로는 남기지 않으시겠다면서
감게에서의 글을 내려달라 하셨기에 위의 글에서 답변서를 내립니다.

.....

이현석 2024-09-07 21:55

전목사님은 장목사님을, 왜 다시 글 쓰게 만들었을까요?

장광호 2024-09-07 22:01

감독후보님들께 질문했을 뿐입니다.
서울남연회 선거판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4. 요구합니다.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님들께 : 장광호

(2024-09-08 07:19 조회 567)

서울남연회 후보님들께 요구합니다.

선거운동에 열심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남연회는 선교를 포기한 것입니까?

선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면

서울남연회를 비방하거나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최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서울남연회는 2020년부터 사회로부터 받은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해결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을까요?

요즈음 유튜브 시대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감리교회의 모든 선교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알고리즘에 따라 끊임없이 노출되는 영상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는 서울남연회를 토막질 하듯 하는 방송 내용 중 하나로 보입니다.

4년전 방송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라 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 4개의 영상 조회수가 100만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좋은 내용이면 칭찬받은 것이지만 나쁜 내용이면 100만 번을 조롱받은 것 아닐까요?

상기해보면 이 내용 속에는
교리와장정의 모순성, 심사위, 재판위의 부당성과 부패성을 그대로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연회 안에서 이에 대해 답을 내놓거나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덮고자 쉬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는 오히려 18대 감독선거판을 이용하여 복권까지 꿈꾼다는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 목사의 전직 감독여부와 복권 문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한 후보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는 서울남연회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물로 부활한 것에 틀림없습니다.

두 후보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선교에 진정 관심이 있으십니까?

선교가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라면 청소부터 먼저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남연회를 상식도 없는 집단으로 인식케 하려는 저 영상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명 방송을 하든 지
그 좋아하는 데모를 통해서라도
지우도록 요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디지털장례사에게 부탁해서라도
쥐도새도 모르게 소멸시켜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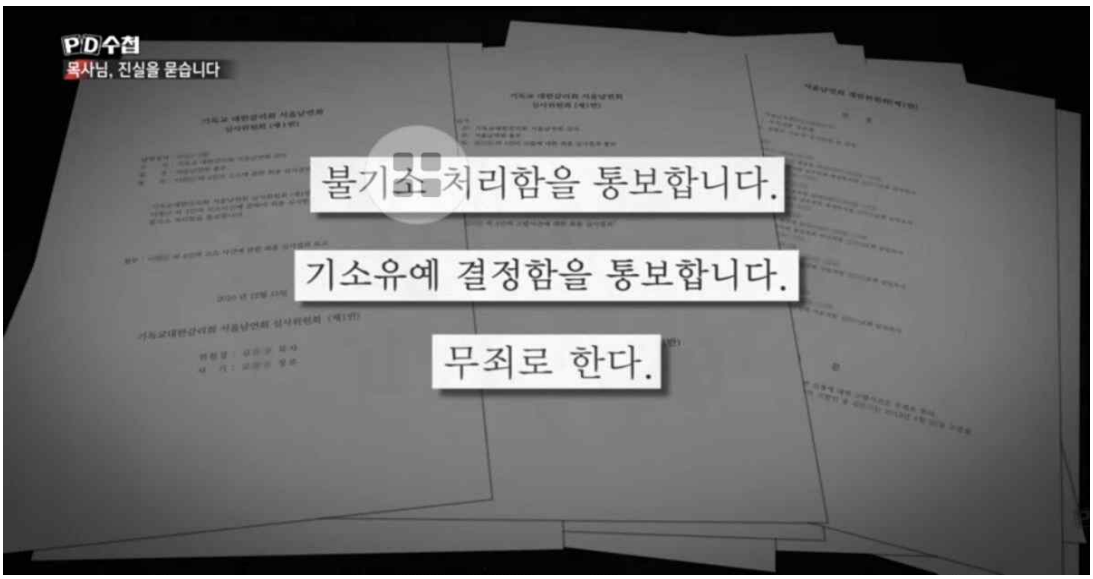
어느 분이 되시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24. 9.8

서울남연회 강서동지방 순종교회 장광호 목사

#5. 선교를 방해하는 그대들은 누구신가? : 장광호

(2024-09-09 05:01 조회 411)



MBC PD수첩 방송 영상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은 누구십니까?
*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감리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 그대들은 누구이신지?

아직도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는 그대들은 누구?

이게 무슨 감리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지금까지 버젓이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태가 그대들의 자랑스런 업적이라 세계만방에 선전하고 있는 것인가?

남겨두려는 뜻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가?

혹시 이것이 K- 감리교회의 세련된 선교방식?
기막힌 노이즈 마케팅?

감리교회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세력이 아니면 결코 택할 수 없는 선교전술 아닌가?

교리와장정을 우습게 여기는 세력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심사위와 재판위가 올바르게 판단했는데
너희가 무슨 소리하느냐고 시위하는 세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심사를 굽게 하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능력충만이라고 우기려는 세력이 아니라면
그대들은 누구라는 말인가?

여전히 이들을 두둔하는 세력들은 말할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 수치스런 집안 일 조용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지
들쑤셔서 일을 또 크게 만드는 거냐고?

그러는 넘들이 또라이라고.

이왕 나온 김에 또라이 노릇 한 번 단단히 해 보겠소이다.

왜 들쑤셔서 난리를 일으키느냐고?

알고리즘 정책에 따라 끝없이 선전되고 선전되는 영상.

2만이 5만 되고
5만이 10만 되고
10만이 30만 되고
30만이 50만 되었다.

이제 100만이 눈앞이다.

그냥 가라앉을 거라며 조용히 하자고 한 분들 때문에.
단 4년 만에.

애써 만든 좋은 설교 영상 조회수 한 번 보라.
기껏 수십, 수백, 수천명 아닌가?

그냥 가라앉을 것 같은가?
암 덩어리인데 가만히 둔다고 낫겠는가?

그대로 두어 앞으로 1년 2년 뒤면 200만 가고 300만 갈 것 아닌가?

돈벌이가 되는 걸 그냥 두지 않겠는가?

그리되면 감리교회가 정명석 교회, 이재록 교회 수준인 걸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감리교회 여성도들 피해 사건을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는가?

해결을 원치 않는 세력 그대들은 누구인가?
이 사건을 방치하는 세력 그대들은 누구인가?

피해자가 없는 무고사건이라고?

무고당한 사건이라면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왜?
왜?
왜?

누가 바로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가?

바로 잡겠다고 한 후보의 선언까지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은 세력 그대들은 누구인가?

또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했다가 수백 명이 물에 가라앉아 죽은 사건을 벌써 잊었는가?

뉴또라이가 우리 아버지 국적을 일본이라고 했다지 아마도?

그러면 나도 일본인?

그런 말 한 이가 또라이들이 아니고 무언가?

그렇다면 6.25때 서울이 김일성한테 함락 당했을 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했으니 그러면 당신들은 국적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겠구려?

친일파 뉴또라이들을 가만 두면 나라가 아작 나지 않겠습니까?

얼씨구나 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후루룩 말아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또 가만히만 있으면 조용히만 있으면 될 거라고 할 세력들에게 묻습니다.

진짜로 조용히 가만히만 넘어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까?

.....

남기연 2024-09-09 09:12

감리회는, 마동석처럼 영적으로 쎈 주먹까지도 쎈 자가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되어 교회안에서의 범죄, 특히 성잡범들을 확 뚜디리 잡아야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장광호 2024-09-09 10:22

게시판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동석을 임시 감독으로 모셔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광호 목사 글에 붙여 : 신동수

(2024-09-09 18:53 조회185)

최근 서울남연회 로** 교회 전** 목사의 성추문을 다룬 mbc보도가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 전목사가 서울남연회로 이적할 때 나는 서울남연회 현직 감리사로서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여러 핑계와 정치적 이유들로 묻혀버렸다. 그리고 나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회성이 부족한 목사로 소외되었다. 이후 전목사가 승승장구 담임목사가 되고 감리사가 되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전목사가 감독 출마할 때 나는 여러 모임에서 감리교회 공교회성을 위해서 이 일만큼은 막아야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읍소했다. 결국 전목사는 순탄하게 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전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일지라도 내가 속한 강동지방회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당뉴스와 감리교 게시판에 성명서를 올렸다. 그리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서울남연회 뜻을 같이하는 목사님들과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성명서로 함께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전목사의 감독직 사퇴선에서 미봉책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이번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전목사를 비롯한 정치세력이 전목사의 감독직 부활을 위해 관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일관되게 싸워온 장광호 목사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나는 장목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미력이나마 손을 보탠다.

감독회장 후보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사표명을 명확히 하기를 촉구한다.

#6. 이번에도 눈감고 싶으신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여. : 장광호

(2024-09-10 07:44 조회 547)

이번에도 눈 감고 싶은가? 감리교회 지도자들이여.

MBC PD수첩의 마지막 멘트가
그리도 가볍고 우서웠던가?

2020년 5월 12일 방송된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편에 나오는
마지막 멘트이다.

"일부 성직자의 성범죄가 발생하면
교회는 그 치부를 덮어주기 급급합니다.

교회재판까지 가더라도 무혐의 처리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지도 않고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교단 상층부인 교회재판에서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게 진정으로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이미 2년전부터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용기있는 피해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성역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몇몇 교단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거나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움직임이 기독교 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체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건 때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으로 권위를 회복하고 존경 받게 될 것입니다."(한학수 PD)

이미 4년 전
선교지의 이토록 무서운 회초리에 대해
우리 감리교회와 서울남연회는
철저히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다.

이미 충분히 조치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건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암묵적으로 침묵을 강요했다.

폭탄돌리기로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고 또 숨겼다.

아예 그런 일조차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는 사이에
사태의 장본인들은 자성이나 반성은 커녕
스멀스멀 기어나와 오히려 활개치고 다녔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고
제대로 조치할 수 없는 교단법의 모순과
그 지도자들의 부실한 조치가 담긴
영상이 100만 뷰가 되어 계속 고발 고발하고 있는데도.

침묵한 세력들이 준 면죄부는 활보할 용기까지 얻는 걸 넘어
이번 감독 선거판을 좌지우지 하면서
감독후보를 장기판의 졸로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니 교단의 정화가 될 리 있는가?

회칠한 무덤들이다.

당사자와 그 교회는 정말 정말 억울한가?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렇게 주장하려 한다면 다시 묻는다.
그 많은 시간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방영 내용 가처분 신청내서 이길 수 있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시켜 정정보도 받아낼 수 있었고
무산시킨 청문회때 그 잘하던 데모를
MBC 앞에서 꾸준히 4년만 하였더라면?

이미 저 100만 뷰 영상들은
벌써 사라졌을 것 아닌가?

그 억울함도 충분히 해소되고
보상까지도 충분히 받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동안 무엇을 하였기에
100만뷰를 찍도록 내버려두었단 말인가?

그렇게 못한 결과
괴물로 폭풍성장한 100만 조회수의 영상.

200만 300만을 향해
날아다닐 자랑거리(?)인가?

수치 중 수치거리가 아닌가?

감리교회의 총역량을 동원해
140년 동안 수행한 모든 선교활동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최악의 반선교활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괴물을
이번에도 여전히 그냥 내버려두자고?

생각지도 못한 선거판에서
갑자기 드러난 이 선교방해물
이제라도 알았으니
전 감리교인들이 함께 나서서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태안반도 기름띠 지우러 다닐 때처럼
그 열심으로 저 영상 함께 치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독 후보와 감독회장 후보들이
그토록 외치며 주장하는
미래로의 감리교회를 원한다면

이 문제 처리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에서 감독회장직에 출마하신
분들께도 호소한다.

이 일에 출마후보들중 대다수가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악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부패한다.

싸우는 것은 그 상대와 함께 하는 걸
거부하는 행동 아닌가?

그러니 악과 싸우지 않는다는 건
동조하거나 한 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침묵하는 건데
침묵이 더 안좋은 이유는
악한 이를 더 날뛰게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함께 하는 이가 생기기 전
강한 악과 싸우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들겨 맞고 맞아도 쓰러지지만 않으면
얼마 머지않아
많은 이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악과 싸우려 용기를 내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과 함께 나서는 이들도 필요하다.

침묵하는 자가 범인이다.
침묵하도록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문제에 눈감는 자 역시 범인이다.

.....

이영구 2024-09-10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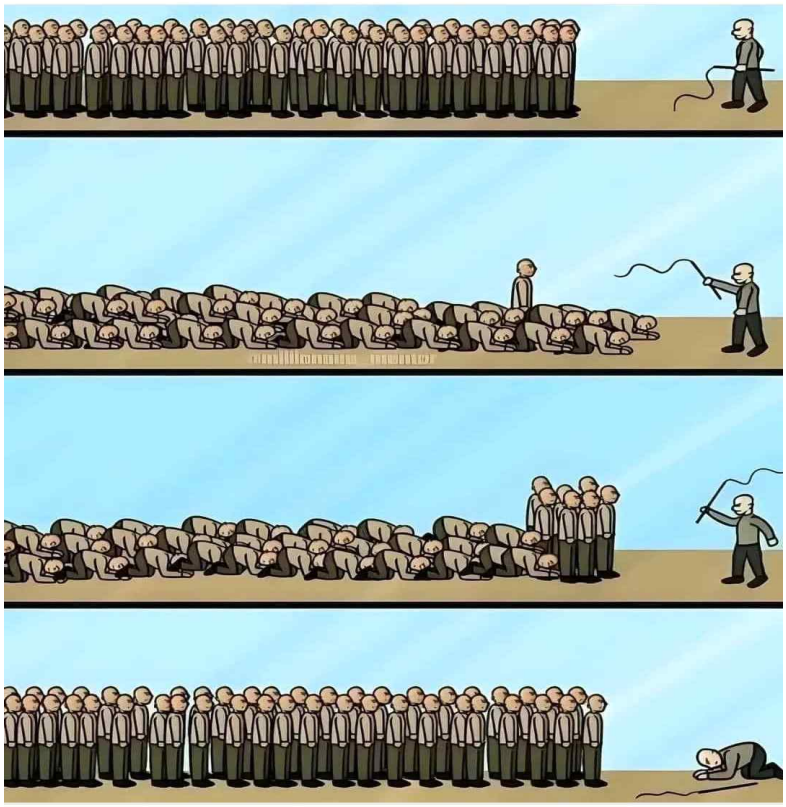
감리교회의 종말을 재촉하는 성추행범이 감독이라니,
코메디를 설교하는 감리교회인가?
마누라 한명으로 감사하게 살면 안되겠나?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라 말이다.
성추행범 목사들은 일부다처제 국가로 이민을 가서 목회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싶소이다.
나 원 참 별

장광호 2024-09-11 08:34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면
스스로 정화작용해서 깨끗해진다고 우기면서
감리교회내 지도자연 하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치워져야할 쓰레기들이 청소한다고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감리교회의 오늘 아닐까요?



#7. 선교국은 그 때 그 영상을 아십니까?(MBC PD수첩 영상) : 장광호

(2024-09-11 07:05 조회 395)

선지자 = 또라이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선지자들이 그 당시엔 또라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을 거부한 분들이니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당시 세태를 따라간 사람들 눈에는
분명 또라이 집단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시대의 또라이들 집단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닌가요?

그 또라이집단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함께 가자고 한 그 길을 과감히 버리고 또라이라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함께 다른 길을 간 것 아닌가요?

우리 감리교회 내 구성원들 중
여성도들은 깊은 통곡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십 수년 동안을 외면받고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해결되지 않기에.

감리교회 권력자들에 의해 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를 막아 그 소리 듣기를 거부하고
눈을 감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입을 틀어막아 소리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세력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
이를 바로 잡자고 소리치는 이들을 또라이 치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귀를 막는 이들이 진짜 또라이들 아닙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을 버린 자들이
또라이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요?

감리교회 선교국에 묻고 요구합니다.

2020년 5월 12일 방영된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100만뷰 동영상들을 아십니까?
영상 1: 61만회
영상2 : 28만회
영상3 : 6.1만회
영상4: 2만회

혹시 아직도 못보셨으면,
보시고도 잊어버리셨다면
잠시 글읽기를 멈추고 꼭 보신 후에 질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춤, 영상 보기)
.
.
(다 보신 다음)

선교에 정말 도움이 되십니까?

자랑스런 감리교회 선교에 기여하고 있는 선교 열매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처럼 방치하고 있습니까?
노이즈 마케팅 전략입니까?

선교에 결정적 방해물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거기에서 찾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 영상을 도저히 내릴 수단이 없다면
저들이 질문하고 요구한 답변을 내보내 상쇄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의 자정노력과 결과물을 방송토록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죄와 허물에 대해 사과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교 아닌가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선교 아닌가요?

교단 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보여주면
그것 자체로 권위를 회복하고 존경 받을 수 있다는 해법까지 제시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에 대해 4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해결활동을 방해한 것이 반선교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선교국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 사태를 더 크게 만든 공범은 아닐까요?

이런 진실한 노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막대한 성도들의 피땀어린 헌금으로 만든 그 어떤 선교 선전물로 감리교회를 포장해도
그들은 감언이설로 받아들이고 위선자 따위로 폄훼할 것입니다.

빛좋은 개살구의 선교활동 백 개보다
제대로된 정화작업 영상 하나가 만배의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피해 받는 형제가 있다면
감리교단 차원에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조치를 위해야
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반면 감리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선교정책에 결정적 해악을 끼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를 증명하는 영상도 방치하는 가라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히 묻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퇴출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에는 관대하고
힘없는 약자와 소수에게는 조폭두목같이 강력한 감리교회가
어찌 오늘과 미래의 감리교회의 표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감리교회에서 내는 그 어떤 선교 전략이 통하겠습니까?

몰락에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물어봅니다.

오늘 점심은 깨끗하고 맛있는 식당에서 드시겠습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식당에서 드시겠습니까?

상한 쓰레기 반찬 가득 만들어 놓고 손님 초대하시겠습니까?

썩은 반찬 맛있다고 먹으면
내 코가 망가지고 내 혀가 망가진 것 아닙니까?

.....

남기연 2024-09-11 08:25

저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깨끗한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광호 2024-09-11 08:40

답글 감사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은
선교전략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3층 Tel : 399-3930-3 Fax : 399-3935 E-mail : ssac1990@daum.net
Copyright©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주)스데반정보

자기 영혼의 때(時間)를 위하여... : 오재영

(2024-09-11 11:53 조회 312)

나쁜 버릇 끊어 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 "순종"의 저자로 기억되는 존 비비어 목사가 한 교회에 초청되어 집회를 인도했다.
집회 후 그 교회 중직자 한명이 다가와 얘기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잘못된 습관을 고쳤는데 담배를 피우는 버릇 만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2년을 씨름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전도 집회가 있어 친구를 초청했다. 그런데 친구가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담배를 끊었다. 중직자는 하나님께 서운했다. 자기는 담배를 끊게 해 주지 않으시면서 자기 친구는 너무 쉽게 담배를 끊게 해 주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네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한 것은 막연한 바람이었고 속마음은 여전히 죄에 끌리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청교도 설교자 토머스 브룩스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본보기를 놀랍도록 사랑한다. 우리가 선한 본보기를 사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 왜 죄를 끊지 못하는지 한탄하지만 말고, 내 안에 죄에 끌리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 Q.T생명의 삶 P.81인용 -.

목사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력은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자기만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변을 보면, 이름만 목사일 뿐 이미 구령의 열정은 오래전에 식어버린 가엾은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한마디로 교활하기가 그지없다. 교단을 대단히 염려하는 듯 하나 자신의 편협한 생각으로 기준도 모호하다. 교인이 많던 적던 목사에게 主日은 자신이 선포할 말씀으로 기대와 떨림으로 맞이하는 날이 아닌가? 이른 아침부터 남의 흠이나 교단의 얼굴인 게시판에 올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한 번 이상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게 교단을 염려하는 명분인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움이나, 잠언 22장 24-27,"怒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鬱憤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은 못하나 많은 부분에 많은 이들이 연류 되었다는 사실은 안다. 함부로 "부화뇌동"한 이들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에 서명한 이들은 정확하게 회개가 전제 되지 않고는 그 사역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주간에 60여 년 전 교회학교 제자와 만났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두레"교회 권사로 섬기며 지난 날 신문 방송의 헤드라인으로 실렸던 분쟁의 과정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함부로 罪를 양산하고 있는 지를...

글을 마치며...
우리가 진정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미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자신이 속한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열려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함부로 교단을 능멸하는 이들의 만행을 무관심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이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급한 인간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

장광호 2024-09-11 20:29

100만 뷰를 만든 영상을 제작한 자가 교단을 능멸하는 자입니까?

100만 뷰 영상 제작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교단을 능멸하는 자입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단의 방치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자가 교단을 능멸하는 자입니까?

해결을 촉구하는 입을 봉하려고 하는 자가 교단을 능멸하는 자입니까?

또 가만히 들추지 말고 기도나 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자고 하는 자가 교단을 능멸하는 자입니까?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여전히 감독 놀음하는 것이 옳습니까?

감독 후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내리게 한 이가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왜 그분에게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성하라고 단 한마디도 못하십니까?

그 분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쳐놓은 프레임에 걸려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 오랜 시간동안 못 풀어 드렸습니까?

마냥 억울함을 당하신 희생양이라면
우리 공동체는 왜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오재영 2024-09-12 12:35

장광호 목사님!
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아직도 목회 열정보다 온갖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의 사연에 목사의 職을 걸으십니까? 전목사,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과장된 선동과 음해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선입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 또한 사역을 결단할 때 나름의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나 돌아보면 남은 것은 義는 없고 罪의 무더기만 남아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는 깊은 생각 없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 목사? 감독 놀음을 한다구요? 하는 이들이나 그리 믿는 이들이나 모두가 가련한 이들입니다. 진정 교단을 염려한다면 우선 본인의 목장과 더불어 선교의 대상들인 제 삼자들의 선입견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 집념 대단하십니다.

오재영 2024-09-12 12:41

이현석 목사에게...
이현석 목사께서도 댓글을 달았더니 급한 일

있어 들어와 답을 하려 했는데 내렸네요?
적어도 40 여 년의 목회의 길을 걷고, 연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느냐는 기본인데, 명색이 연회를 섬긴다는 이가 팔짱을 끼고 등장을 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무슨 누구와 연관되었다는 등 소설을 읊어 대더니, 본인 생각에도 지나쳤는가?

세월 붙들어 놓은 것 아니니 영혼 구원에 매진하기를.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깊어진다.” 가벼운 처신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 내리는 것, 인간관계는 신뢰로 쌓여가는 겁니다.

이현석 2024-09-12 13:55

<누구와 연관되었다는 등 소설을 읊어 대더니, 본인 생각에도 지나쳤는가?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

제가 삭제한 글의 요지는..
<은퇴하고, 전준○목사님 따까리 하는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입니다.

그럼, 왜 삭제했냐? ?
원로 목사님이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삭제한 것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기엔, 너무 아픈 소리니까요..
쓰러지실까봐 무서워요..

원로목사님이.. 여기서, 장광호목사님과 <전준○목사님>을 주제로, 열심히 말싸움 해보세요..
PD수첩 방송 탄, 전준○목사님이 퍽도 기뻐하겠습니다..
밥 사주고, 봉투 주실 줄도 몰라요..

PS. 남들 생각에 원로목사 등 두들겨서,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 쓰다가, 꾀심죄 걸리면.. 날러갈 수도 있을거에요.. 전목사님이 이것을 모를까요?

장광호 2024-09-12 12:44

3명이 호랑이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이 결국 가해자가 되어야 끝난다는 것이군요?

오재영 2024-09-12 15:51

장목사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 했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대답하라시면, 온갖 사람들 달려들어 뱀장어를 거대한 아나콘다로, 고양이를 대호(大虎)로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고로 생각하면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하여 패가망신당한이들 한둘이 아니건만, 아직도 호기심들을 유발시키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엎드려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말씀대로 뉴-또라인지 다른 또라인지도...

장광호 2024-09-12 16:39

오목사님!
우리 모두가 불쌍하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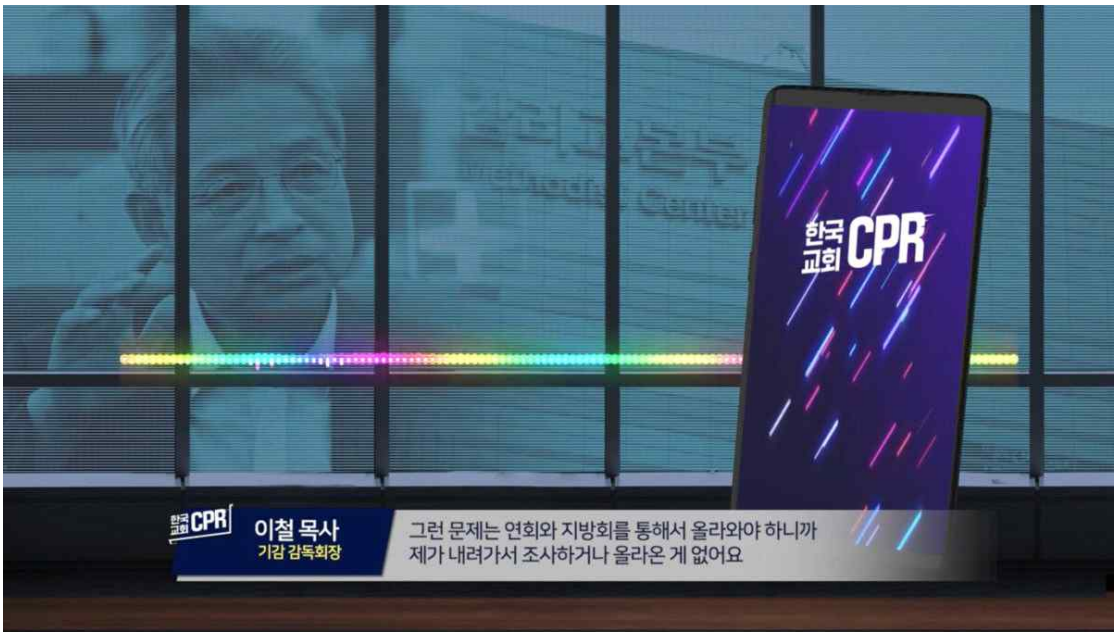
뱀장어를 아나콘다로,
고양이를 호랑이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결국 뱀장어와 고양이가 본 모습이라는 말이시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진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나콘다와 호랑이로 생각하고
여전히 날뛰는 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까?

#8,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장광호

(2024-09-12 08:59 조회 420)



#8,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감리교회 내에 흘러다니고 있는
로** 교회 전** 목사에 대한 2가지 프레임

여성도를 억울하게 만들고도 법망을 피해간 가해자.
누군가가 씌운 프레임에 갇힌 피해자.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프레임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이 두 가지 설에
목사와 장로들이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감리교회의 엄연한 현실.

투표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아직도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일까?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이라 결론이 나야 되는 사안이지
서로 상생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는데도
이걸 고쳐야 된다 안 고쳐도 된다는 주장이 함께 있는 문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변기를 6년동안 안고친 채
그 위에서 계속 변을 눈 감리교회 아닌가요?

누군가는 변기가 막혔을 리가 없답니다.
막혀도 냄새가 날리 없다고.

계속 누다보면 언젠가는 뚫릴 것이랍니다.
밟히는 변을 보고도 된장이라고도...
그 밟은 발로 온 세상을 다닙니다.

누군가는 변기를 고치자니
집안 수치 까발린다며 펄펄 뜁니다.

진짜로 누가 억울한 피해자일까요?

가려내지 않았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지요?

피해당한 수십명이 한 명을 린치한 사건이 되어 버렸지요?

수십명에게 린치당하고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 피해자를 순교자마냥 추앙까지 하며 따르는 이들도 생겼지요?

피해자들에게 계속 더 억울하게 살아라고 강요하는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MBC PD수첩은 이것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합리적 해결방법도 제시했지요?

그런데 이를 두고
악덕 방송 MBC가 기독교를 죽이고, 감리교에 타격을 주기 위해 벌이는 술수라고 그럴싸하게 호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악한 방송에 대한 대처방법은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힘쎈 방송에서 한 일인데 힘없는 감리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며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주장에 동조하고 침묵한 이들이

100만 뷰의 괴물영상으로 성장케 하여
감리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수치를 당하며 살자고 한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MBC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확실했다면
이를 바로 잡기에 결코 짧지않은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고 개교회 문제인데
연회가 총회가 어떻게 관여하느냐고
책임회피하고 있는 분들께 묻습니다.

막힌 변기 안 뚫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막힌 변기 안고치고도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감리교회의 변기통은 여전히 망가져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치자고 나서는 이도 없습니다.

.....

신동수 2024-09-12 09:36

부끄럽고 아프지만 적확한 비유입니다.

장광호 2024-09-12 09:56

동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테 미루고
엄마한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중 제일 먼저 깨달은 자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창석 2024-09-12 10:30

장목사님 글에 진실성이 더 보입니다.
인간의 성문제 타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장광호 2024-09-12 10:40

함장로님 동의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어느 목사님이 카톡으로 주신 내용 일부 소개합니다.

감리교회 목사 장로 만나면 냄새부터 맡아봐야 겠어요 ㅋㅋㅋ

#9. 뱀장어, 고양이 -> 아나콘다, 대호 : 장광호

(2024-09-13 03:10 조회 335)

#9 뱀장어, 고양이 -> 아나콘다, 대호

오재영 원로목사님의 고견에 따라
이 사태의 진행과정을 복기해 봅니다.

.....

오재영 2024-09-12 15:51

장목사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 했습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대답하라시면,
온갖 사람들 달려들어 뱀장어를 거대한 아나콘다로, 고양이를 대호(大虎)로 만들었다는 생각입니다.

고로 생각하면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로 인하여 패가망신당한이들 한둘이 아니건만, 아직도 호기심들을 유발시키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엎드려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말씀대로 뉴-또라인지 다른 또라인지도...

.....

오목사님의 논리에 따르면
전**목사가 원래는 뱀장어급이고,
고양이 정도급밖에 안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건드려서
아나콘다와 큰호랑이급으로 커졌다는 것이지요?

제가 글을 오독한 게 아니라면 ...

그렇다면
전** 목사님의 문제에 대해 비판했던

전국의 수많은 목사, 장로, 성도들이
아나콘다, 대호 제조기인가요?

또한 전××목사가 감독되는 게 못마땅해
강하게 비토했던 타출신 목사, 그리고 장로들이 뱀장어와 고양이를 아나콘다와 대호로 키워준 장본인들인가요?

그리고 성명서를 내었던 수많은 단체와 그 구성원들 역시 공범이고요?

이렇게 한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고?

좋습니다.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보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태 진행을
재구성하면서 그 답을 풀어야만 되는 겁니다.

.....

전**목사님을 따르고 존경하며
함께 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전**목사는 누군가가 씌운
<프레임에 희생당한 감독>.

그러니 복권은 당연한 것이며

감독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직 감독인 것이다.

80일만에 스스로 사퇴했어도.

이런 믿음이
옳은 믿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자수해서 광명찾자!

그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라.

누구에겐가 사주 당해서
전** 목사에게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한
수십 명의 여성도들도
양심선언을 하고 사죄하시라.

무고한 전 목사님을
감히 그토록 오래동안 괴롭히다니
성도로서 말이 됩니까?

쉽지 않은 일인 줄 알지만
용기를 내서 자백하는 것으로
한을 풀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프레임에 갇혀
너무나도 오랜 동안 고생하신 목사님을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랜 동안 내심 갈등해온 자신과
고통 받으신 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리교회의 억울함까지도 풀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거짓된 증언에 속아서
감리교회를 허무는 영상을 만들고 판매한 MBC는
부끄러워하면서
100만 뷰의 악의에 찬 영상을
스스로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전**목사님과 함께 오해받은
전목사님 지지 목사와 장로들의 선택도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부디 전**목사님을 음해하거나 이용당해
아나콘다와 호랑이로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의
회개와 사과를 촉구합니다.

.....

대충 이런 식의 방향으로
스토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오목사님께서 생각하는 해결의 방향은
이런 결론이신 건가요?

맞으시다면

과연 이런 결론에 대해
감리교도들은 얼마나 수긍할 것 같습니까?

MBC PD 수첩과
이 영상을 시청한 100만 국민들은
그 결론을 존중할까요?

정말
이런 그림이 감리교회를 살리는 길인 것이지요?

결국
전**목사님을 억울하게 만든
감리교회내 또라이들을 정화해야만
감리교회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이겠지요?

.....

오재영 2024-09-13 10:49

옛날 중국을 상국으로 섬기던 때...
황제의 친서를 지니고 방문하는 사절단의 행패가 극심하여 국내의 대신들은 그들을 영접하는 일을 맡으려는 이들이 없었다. 온갖 트집에 잘못 걸리면 삭탈관직은 물론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하기가 십상이었다. 때문에 사신단 이 올 무렵이면 스스로 職을 내려놓고 낙향하는 이들이 많았다. 급기야 조정에서는 전국에 방을 붙이고 인재를 구하였으나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을 아는 이들은 한사코 목숨 걸 일 있느냐며 사양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시골 마을에 바보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총각이 주변의 꼬임에 빠져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응시를 하고 말았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 혼자 단독 후보가 되고 말았다. 염려되는바 많았으나 여차하면 그에게 혐의를 씌워 책임을 지워 제거하면 되리라 의논하고 그를 보내기로 한다. 인솔하는 대표로 그를 그럴듯하게 당상관 고위직으로 치장하여 많은 실무진들과 함께 맞이하게 했다.

사신단과 조우하는 날. 중국의 대표가 다짜고짜 대표로 앞에 있는 이 사람 에게 자신의 세 개의 손가락을 세운 후 내밀고 그를 노려본다. 그런데 이 바보 총각은 주저함도 없이 자기는 다섯 손가락을 펴 사신단의 대표에게 디밀었다. 순간 다른 이들은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리는데 상대편 사신단 대표는 당황하더니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그 어느 때의 방문보다 정중하고 질서 있게 사신단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물론 바보 총각에게는 푸짐한 선물과 상급을 내리고...

그가 마을에 돌아가니 못 돌아올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누군가 물었다 중국 사신 대표가 뭐라고 묻더냐고.. 그의 대답은, 별 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손가락 세 개를 내보이기에 나는 다섯 손가락을 내보였더니 끝났다고...

왜 다섯 손가락을 보였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침에 내가 인절미 다섯 개를 먹었는데(마지막으로 알고 귀한 인절미를 해 주었다.) 상대편은 세 개를 먹었다고 하기에 나는 다섯 개를 먹었노라 했다고...

사실의 내용은, 중국 사신 대표는 기 죽일 심산 으로 조선 대표에게 유교(儒敎)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綱領)인 삼강(三綱)을 아느냐? 물은 것 인데, 자신은 삼강을넘어 오륜(五倫)까지 안다. 는 것으로 이해한 대표가 겸손한 것이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다.9장 7-8절의 말씀으로...
거만한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 오직 罪인 된 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이다.

장광호 2024-09-13 12:39

오목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무슨 의도로 주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줄 알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름 없는 의병들이 제 죽을 줄 모르고 일본군의 칼에 맞선 것이 한없이 어리석은 짓인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은 주기철 목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굴복하여 신사참배한 감리교회는 현명했다는 것입니까?

현명한 일에 대해 왜 80년 만에 눈물로 사죄하며 기도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리 어리석게도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12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달려죽은 것을 본 사람인데도 똑같이 죽는 길을 택했을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최범순 2024-09-14 16:56

장광호 목사님!
예수님은 바보 맞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바보가 구합니다
저는 10년간 [바보 예수]에 관한 주보 칼럼을 쓰다가 며칠 전에 제 영적 고향인 강화로 이임했습니다
여기서도 쓸 겁니다

장광호 2024-09-14 17:58

최범순 목사님!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바보를 못 이기는 이유
가 신기합니다.

강화로 오셨다는 말씀이신지요?
계속해서 바보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 : 함창석

(2024-09-14 07:26 조회 168)

신성한 가정제도

함창석

이 세상으로 태에서 나오는 생명
숫컷을 남이라 칭하고
암컷을 여라 칭하니
남여가 보편적인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양성을 띠고
태어나게 되니 소수다
창조질서의 아이러니 아닐까
가정제도를 두는 이유야
창조적 생명이 우선인 것이다
낳고 또 낳아 혈맥으로
공동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간음이나 음행 매춘 등
불륜이나 외도라는 이름으로
신성한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죄악이다
십계명 중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가계를 보호하는 언약으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 5:27-32)

姦자는 女(녀)+女(녀)+女(녀)의 합자이다. 여자(女子)가 북적거리는 모양에서 음란(淫亂)의 뜻을 나타낸다. 姦자에는 3명의 여자가 그려져 있다. 3명의 여자를 그린 것이 어찌하여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부권의식이 강했던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러한 인식은 문자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女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뜻이 있다. 그래서 妋(시끄러울 난)자는 '시끄럽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姦자는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간음하다'라는 뜻은 姦자가 아닌 奸(간음할 간)자가 쓰이기도 한다. 淫자는 뜻을 나타내는 삼수변(氵(=水, 氺) 물)部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물속에 담그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壬(음)으로 이루어진다. 물에 축축하게 적시다의 뜻이다. 전(轉)하여 물에 담그다, 度(도)를 지나치다의 뜻이다.

壬자는 허리를 숙인 사람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까이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가까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壬자에 水자가 더해진 淫자는 '물을 가까이하다'라는 뜻

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淫자는 후에 '물'을 '욕정'에 비유하게 되면서 '탐하다', '음란하다'와 같이 욕정을 가까이한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디지털 한자사전 e-한자)

구약에서 보통 간음이라 할 때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7계명은 이러한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출 20:14; 신 5:18; 참조. 레 18:20).

모세 이전에도 이것은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되었으며(창 39:9), 그 외 이방 사람들까지도 간음은 죄악으로 인정되었다(26:10). 모세의 율법은 간음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다(레 20:10; 신 22:22).

간음을 행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 징벌이었다. 그 형벌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돌로 쳐 죽인 듯하다.특히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경우에는 그 둘 모두를 돌로 치도록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신 22:23-24).

그러나 A.D. 200년경에 편집되었던 유대주의 랍비 문서인 미쉬나에 따르면, 그 형벌이 교살로 나타나고 있다(산헤드린 11:1 참조, 7:4). 이 단어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와서, 선지자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배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사용되고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모든 언약을 다 이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음하였다고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렘 5:7; 참조. 사 57:3; 렘 3:8-9; 13:27; 겔 23:27, 43; 호 2:4).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치 못한 자들을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다(마 12:39; 16:4; 막 8:38). 신약에서 간음은, 다른 모든 계명들과 함께 심령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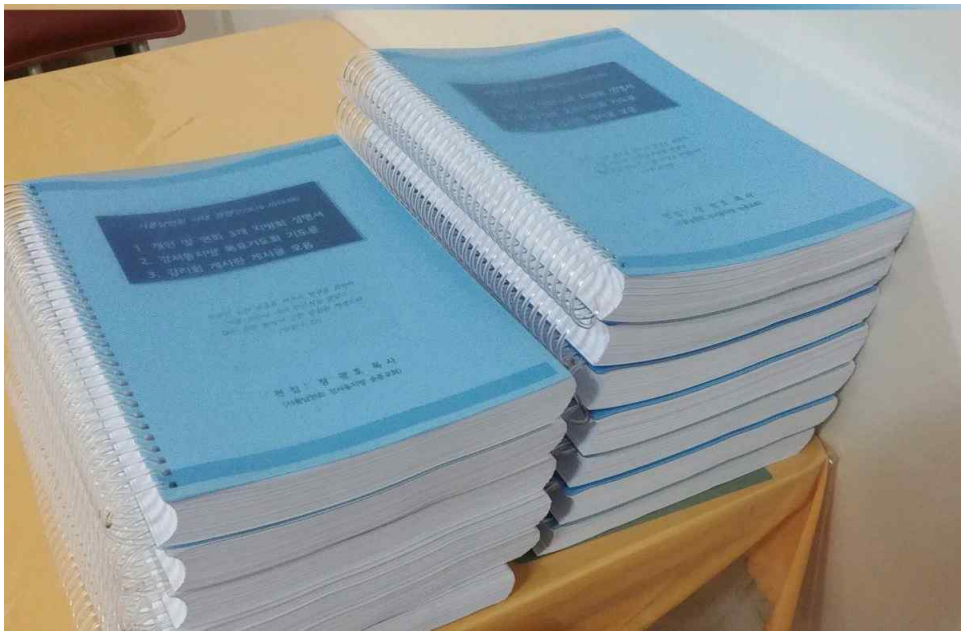
예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18; 참조. 마 15:19; 막 7:21). 그리고 배우자의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한 남자가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도 간음으로 규정하심으로써(마 5:31-32), 일부 일처의 창조 원리를 확실히 하셨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와 그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요 8:6-8). 그 고소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도 그녀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9-11절).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 있는 가정의 개념으로부터 출발되었다.

#10. 하락한 감리교회 브랜드 가치는 얼마? : 장광호

(2024-09-14 07:35 조회 396)



#10. 하락한 감리교회 브랜드 가치는 얼마?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전** 목사님측에서 장광호 목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는 것 같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빨리 이 선에서 멈추라는 협박인지
알 수 없으나 굳이 하신다면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실 것을 권하면서
제 입장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
OR 사실적시 명예훼손?

만약 명예훼손을 한 게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실형이 나오면 살 것이고
금융치료를 원하신다면 받을 겁니다.

단, 금융치료는 노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재판 받으려면 어찌될까 생각하다가
난 아이디어입니다.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 받겠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2.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한다면
무료변호인단을 모집해 보겠습니다.

감리교도들 중 엄청난 숫자의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이들 중에는
감리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중인 자가 오히려 바로 잡자는 목사를 상대로 건 송사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기꺼이 변호를 자처할 분들이 최소한 3명은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설마 오직 돈만 아는 감리교도 이겠습니까?

3. 증인은 MBC PD수첩 한학수 PD를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같은 피고소인으로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 강도로 보면 저보다는 100만 배 더 되지 않을까요?

MBC PD수첩에서 방영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자료들을 법정에서 방출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

6년 전 2018년에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한 놈만 명예훼손으로 걸고 패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이쯤에서 되물어 봅니다.

MBC PD 수첩 '목사님, 진실은 무엇입니까? ' 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브렌드 가치는 얼마나 하락되었을까요?

달리 말하면, 명예훼손을 얼마나 당한 걸까요?

전** 목사가 저 영상을 방치시킨 것으로 인해 감리교회와 서울남연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감게에서 2018-2022년까지 함께 했던 감리교회 교인들의 아우성을 한 곳에 모은 편집본 4권을 조만간 공유하겠습니다.

4권은 총 1,700 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향후 감리교회사를 연구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각 신학대학에서도 보관하셔서 후학들에게 경계거리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명예훼손에 참여한 공범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감게에서는 3개만 링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올리겠습니다.

이번 감게에서 올리는 글과 댓글, 반박 글등은 5집으로 편집 중이며, 종료가 되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

이영구 2024-09-14 21:13

감리교회에 훼손할 명예가 있기는 한가?

미자립교회가 50%가 넘고 목회자의 빈부격차의 정도가 극심하여 일반사회 빈부격차의 모델이 되고,

전통적 유산인 감리교회는 사유화를 넘어 세습함으로 인하여 도적놈, 사기꾼들의 모델이 되고,

교회의 여성도들을 물건처럼 생각하여 추행하기를 성추행범들의 모델이 되지 않던가?

감리교회에 더 이상 떨어질 명예가 뭐가 있는가?

각설하고,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 한가위는 빈부를 막론하고 음식을 공평하게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 의미가 있다하니,
그 전통적 의미에 따라 지내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요.
감리교도는 전통(Tradition)을 핵심교리로 믿는 교단입니다만,
그 전통의 신학적 의미가 교리에만 있는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도 해당된다고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요.

장광호 2024-09-14 23:27

훼손될 가치마저 상실된 감리교회?
훼손될 가치가 커서 명예훼손죄를 생각하시는 분.
훼손된 감리교회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나선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유권자들.

이래 래 나라 상황과 감리교회 상황이 샴쌍둥이 같아
더욱더 쓸쓸한 한 밤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캄캄한 한 밤 중에 오신 건가 봅니다.

#11. 입장문(감독선거 관련 감신 M.Div 서울남연회 회원)

(2024-09-19 15:40 조회 488)

감신 M.Div. 서울남연회 연회원 입장문

감신 M.Div. 서울남연회 연회원들은

이번 2024. 9. 26.(목)에 실시되는 제18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느 누구의 편을 든 적 없이 공평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양측 후보에게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알려드리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요청하는 내용은 후보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

감리교회 게시판에 올린 글들로 인해 입장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하고 있는 부분은 누가 당선되느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출된 전**목사의 감독 복권 문제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또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100만 뷰의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의 후속조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2018년 당시부터 깊이 관여해온 입장에 서있는 서울남연회 회원이자 감리교회 목회자로서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서울남연회와 감리교회 본부 차원의 해결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도록 감독후보, 감독회장 후보들과 관련 부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들께서는 페어플레이 하면서 승리하시고 당선되신 후에도 우리들의 관심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주신 답변서 게시 및 철회 후 입장의 변화가 있는 후보 분이 계셨는데, 구두로는 약속할 수 있으나 문서로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후보과 관련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고 후보 판단을 위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투표는 회원들이 신앙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신M.Div 서울남연회 회원들은 전** 목사의 감독직 복권시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또한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가 비루하게도 그러한 비신앙적이며 비감리교회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이후 부터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연대하여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 9. 19

감신M.Div. 서울남연회원 일동

#12. 감독복권 추진설의 문제점

(2024-09-19 18:27 조회 633)

감독 복권 추진설의 문제점

18대 감독선거 운동 과정에서 노출된 전** 목사님의 복권 추진 움직임 관련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 스스로 사퇴하였기에
감독 복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성문제로 사퇴한 것이 아니다.
2. 재정문제로 사퇴한 것이다.
3. 2018.10.30 그 당시 감독들 모두가 취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목사가 감독이 아니라고 하려면 다른 감독들도 다 취임하지 않았기에 감독이 아닌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프레임으로 희생되어 스스로 사임한 전목사의 복권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전목사 지지자들은 이런 논리로 다른 이들을 설득한다.

전목사 지지자들은 조장철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킨 후 이를 추진할 것이다.>

이것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상황이다.

전목사님은 왜 사퇴하셨을까? 당연히 성문제도 아니고 재정 문제도 없는 분이라는데?

그 당시 거침없이 버린 감독직에 왜 미련을 가졌고, 지금은 왜 다시 되찾으려는 걸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의 결론은 3가지 중에서 나올 것이다.

1. 전목사를 음해하는 유언비어이다.
2. 상대가 씌운 선거 프레임이다.
3. 사실이다.

한 후보는 그의 복권 문제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으며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한 후보는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중간에 입장 철회를 밝혔고, 확실한 답변을 추가로 요구하였더니 구두로는 약속할 수 있으나 문서로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확실한 답변 회피로 해석하면 위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태가 뭐 그리 중하기에 그렇게 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느냐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복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복권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러나 그의 복권 시도가 주는 의미는 상상외로 크고 다르다.

2019년 사퇴 당시, 사퇴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끝까지 해결치 못해 파생된 문제가 오늘 겪는 사태의 핵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

기왕에 복권 추진에 관한 문서 답변을 철회하신 후보가 전**목사님이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억울하다고 확신한다면 아예 이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하면 좋겠다.

그 후보님은 피해자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그동안 정말 억울하게 오해받고 살아서 한 맺힌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닌가?

그게 맞으면 15대 감독으로 복권시켜 예우하는 것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지 않는가?

피해자가 그 당시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정말 억울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감리교회의 집단린치 사건이 되는 것이다.

성문제로 뒤집어씌우고, 재정 문제를 걸어 성공한 목사이자 멀쩡한 감독의 목과 팔을 비틀어 끌어내린 것이다.

감리교회 여성들과 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한 몸 되어서 비틀고 또 비튼 최악의 사건인 것이다.

시간이 지난 뒤 보니 그게 아니라고 확인되었다면, 그 당시 그렇게 한 개인들과 집단은 사과해야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게 맞다.

누군가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로 상쇄되어야만 끝이 나는 사안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텐데 감독 되는 이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울남연회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당연히 감독의 직무가 아닌가?

상대후보의 3번 출마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제기했다면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말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전목사님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그들이라면, 그리고 그 억울함에 응답하며 불의를 바로잡자고 함께 일어났던 사람이 옳다면?

이 문제는 감리교회와 서울남연회 내 지연되고 있는 정의 실현의 문제와 진짜 사랑을 훼손시키고 있는 희대의 대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탈을 쓴 가해자가 법망과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 던져버린 왕관을 되돌려 달라는 비루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2차 3차 가해 사태로 점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반된 두 주장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렸다고도 답할 수 없는 사안이다.

밀정과 독립투사가 어찌 한 몸이겠는가?
독도가 어찌 일본과 한국 동시의 영토가 될 수 있을 런지?

2019년 서울남연회 감독의 불미스런 일로 인한 사퇴건은 140년 감리교회사에서 미증유의 사태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현재진행형 사건임에 틀림없다.

사실상 불의한 감독이 전 감리교도들에 의해 쫓겨난 사건으로 다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시간이 흘러가다보니 도리어 감리교회가 작당하여 억울한 사람을 쫓아낸 사건으로 왜곡되는 중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대에 이 일을 만들어낸 서울남연회원들인 목사와 장로들은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할 당사자들임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쩔쩔 매는 공범과 조력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우리들의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는 영상의 그 조회 수가 100만을 기록한 가운데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냐고?
답을 달라고 '다고 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째.

이런 주장이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니라면

한 후보의 입장 철회 표시가 전목사의 복권추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전혀 풀 수가 없기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서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감독의 직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힘없고 억울한 자를 계속 무시하고 짓밟아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의 감리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후보들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과연 어느 것이 감리교회와 서울남연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겠는가를?

서울남연회가 끝없는 욕망의 결사체로 변질되어야 하겠는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과는 반대로, 불의와 불법이 물같이 흐르고 폭력과 억울함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해야겠는가?

이 질문이 후보들을 잠시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후보들과 감리교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 확신하기에 이를 끝까지 붙들고 힘든 길을 가려는 것이다.

또한, 감리교회 역사에도 우리의 이러한 몸부림과 아우성의 발자취를 그 흔적이라도 남기려 발버둥치는 것이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구하는 서울남연회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해본다.

서울남연회여, 그대 속에는 과연 정의가 살아 있는가?

2024. 9. 19(목)
서울남연회 강서동지방 순종교회 장광호 목사

.....

신동수 2024-09-20 06:15

말은 되고 글은 안 된다.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장광호 2024-09-20 08:04

말은 휘발되나
사람의 법망은 다 피해가지만
하나님의 법망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구 2024-09-20 11:35

전세계의 종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리를 가진 종교집단인 감리교도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헛된 꿈을 꾸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성도들을 물건처럼 다루는 성추행 목사,
감리교회 전통적 유산인 교회를 세습한 도적놈, 사기꾼 목사.
이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자중함이 현명한 처신일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
정의를 위한 정보와 지식도 축적하고 이를 후세에 전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이는 막거나 지울수 있는 속성의 것들이 아님니다요.

장광호 2024-09-20 12:26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물질이 주는 힘만 믿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철저히 무시하지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아이의 돌멩이에 의해
쓰러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실상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현석 2024-09-20 19:06

제 생각은, (제가 장정을 읽지는 않았지만) 근거없는 아부성 발언입니다.
누군가 전목사님의 돈을 노리나 본데, 전목사님의 처지도 참 딱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밖에 없나 봅니다.
돈이 썩어서, 파리가 낍니다.

【1466】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감독사퇴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처벌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권”이 가능할까요?
그러니, 복권설의 이면에는, 본인들도 과오에 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개인이 사퇴한 것을, 연회가 어쩐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적 발상입니다.
서울남연회에 통용되는 생각들이 매우 걱정스럽군요.

만약 그때 사퇴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총특재에서 <출교>시켰을 것입니다.

장광호 2024-09-21 07:56

감리교회 최고의 인재 중 한명인 이현석 목사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서울남연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쓸데없는 논쟁만 벌인 셈이군요.

감사합니다.

감독, 감독회장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 오재영

(2024-09-22 20:43 조회 336)

제36회 총회 감독·감독회장선거가 며칠남지 않았다.

지난 4년 감독회장과 각 연회의 감독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었는가? 동일한 목회의 길에 그래도 인정 받고 따르는 이들이 있어 자신이 속한 연회와 교단을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구하여 원한 대로 선택을 받았는데, 본인들로 인하여 교단이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오늘 온갖 이념과 사상이 혼돈된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조국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아무나 포용하자는 것 아니다.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 받은 신적 기관으로서 본래 교회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이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하고 사랑하며 신앙의 권위를 시급히 회복하여야 한다. 오늘 그리스도인 의 참된 권위는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의 증언과 삶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바른 책무이기에 지도자 된 이들은 매일 매일을 진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구도자 와 거리가 먼 사람들...

지난 4년 전으로 돌아보면 실천하겠다고 한 약속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애당초 출발부터 자신들과 패거리 지어 선거운동 한 이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고 이제는 본인 자신도 이룬 것 하나 없이 4년의 임기만 채운 모습들이다. 돌아보면, 함께 경쟁에 참여한 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모든 통신 기능이 발전하였음에도 연회는 절대로 통합할 수 없고, 연회 지도자도 연회장은 절대로 아니 되고, 오로지 감독으로만 불리어진다? , 감독 회장의 신분도 교회를 담임 하는 2년 제로 하면 아니 되는가? 우리보다 몇 배 신도가 많은 합동과 통합은 총회장 임기가 1년이다. 너나 없이 모두가 절실함은 없이 입으로만 염려하듯 하나 모두가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교단이 선교의 대상들인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기대와 관심을 끌고 있는가? 모두가 누워 침 뱉는 격이지만 미래 우리의 후대들이 은혜로 살아야 할 세상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신탁(神託)을 빙자하는 구도자 집단에서 자만(自慢)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결여 한 지도자들이다. 이러한 지도자들 곁에는 필연적으로 그에게 선(線)을 벗어난 책임을 물을 만한 강심장의 동료는 없다. 이들을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 그보다 미숙하기에 맹목적인 추종자의 태도를 갖고 그가 추구하는 일을 수월하게 준행하는 이들이다.

탁월한 영적 안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대한다.

죄인의 욕망을 숨기고 언제나 수많은 청중 앞에서 칭찬과 찬사를 갈구하는 허영심 가득한 세상이 여전히 교계를 지배하려 한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도적인 방법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가 일탈 된 교만(驕慢)에 도전한 이들도 있었다. 그 옛날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죽은 후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당에 안장 되었는데, 그 장례식은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었다. 프란츠 조셉 황제가 죽었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 원의 정문에 도착했고 의전관이 문을 두드렸다. 그 때 문 너머에서 수도원장(修道院長)의 음성이 들렸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오 “라고 의전관 이 대답했다. 이어 나온 대답은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말해 보시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大) 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티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오.“

“우리는 당신을 아직 모르겠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하는 서늘한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때 서야 의전관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이어 들려온 대답은 “그대는 이제 들어오시오”라고 수도원장(修道院長)이 말했고 대문은 활짝 열렸다. (오스기니스. 소명 P.199참고).

글을 마치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자리에 온 관심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代贖物)로 주려 함이니라.” 지나온 세월, 남다른 큰 은혜로 살아온 사역의 길,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시험에 들지 않고 감당하기를 기도 드린다.

.....

오용석 2024-09-23 00:25

"유감스럽게도 원로목사님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감독회장은 없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전하라 하십니다.

민관기 2024-09-23 23:48

혹시, 어떤 분이 저는 아닐거에요 그쵸? ㅎㅎ
오 목사님 건강과 평안을 늘 기도합니;다.

오용석 2024-09-24 12:54

늘 기도하신다니 부담되네요
전 아닌데 어쩌쥬?

민관기 2024-09-24 19:49

놀면서! 기도를 열고 숨을 쉬며!!
늘!!!

엄재규 2024-09-24 09:31

√ 성경 말씀 지키는 분
√ 존 웨슬리 일생 모범 삼은 분
√ 선거가 시작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분
√ 교권자 되어 명령하기보다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
√ 개혁교회 전통 자랑하기보다 오늘도 내일도…. 개혁하는 분

성경에 감독의 목적, 자격 조건과 의무가 기록되어 있다; ㉮ 딤전3:1이하, [미쁘다 이 말이여, ❶(목적)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❷(자격 조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 딛1:7이하, [감독은 ❶(자격 조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❷(의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 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으로 올라 간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 이현석

(2024-09-23 19:44 조회 229)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878

법원의 판단이 진일보했습니다.

1. (선관위) 자격이 '있다'와 '없다'
없다고 하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있다고 하면, 선거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감독회장 선거..
김○○목사님의 후보자격이 없다는 사회법의 가처분 판결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거결과를 보고 판결했어야 가처분의 취지에 맞습니다.
판사가 자기 알통을 자랑한 격입니다.
반면 現감독회장님의 과거 후보시절, 후보자격이 있다는 가처분 판결은 옳았습니다.

2. 보궐 "썰"
"여지"에 대한 재판부 주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거 前後의 가처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감독선거에 대해서는, 감독회장선거와 달리, 그냥 skip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진영이야 긴장되고 첨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장정의 구성에 대해서, 진일보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썰이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의 취득 재산에 대해서, 장정은 유지재단에 등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정은, 다른 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목사와 장로의 법인 이사장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의 취지는 상호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장정의 전체 구성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판결은 정해진 것이 없고, 부장판사의 개인 성향이 작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교회의 장정도 이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혼란과 쇠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구성훈, 등록일시:2024.09.23 16:54, 출력자:김영조, 다운로드일시:2024.09.23 17:0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4카합21277 후보등록결정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조장철

서울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관희

채 무 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6층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구성훈, 등록일시:2024.09.23 16:54, 출력자:김영조, 다운로드일시:2024.09.23 17:02

담당변호사 이병[redacted]

채무자 보조참가인 유병용

서울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redacted]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9. 26. 실시하는 제36회 총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유병용에 대한 2024. 7. 26.자 감독후보결정의 효력(이하 '이 사건 감독후보결정'이라 한다)을 정지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는 2024. 9. 26. 제36회 총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채권자는 위 감독선거에서 기호 1번으로 입후보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채무자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한 사람인데, 과거 채무자가 치렀던 제33회 총회 감독보궐선거 및 제35회 총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도 각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채무자 「교리와 장정」은 감독선거에는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도 위 2회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까지도 위 2회 제한에 포함시켜서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채권자는 포함된다고 보아 보조참가인은 이미 입후보 횟수 제한을 초과하여 부적법한 후보라는 주장이고, 채무자 측은 보궐선거는 위 횟수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

열람용

편 집 후 기

감독선거의 일방적 결과를 보면서 선거운동 후반부에 돌출된 한 사건이 백중세를 뒤집도록 한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도끼자루가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이합집산 하는 세력들이 모쪼록 의기투합하여 방치해 둔 사건이었다.

감리교회 140년 역사상 미증유사태, 즉 2018년 무투표 당선된 감독의 불미스런 일로 인한 사퇴와 보궐선거까지 하도록 만든 사태이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감리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중차대한 원인 중 하나인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한 사태이다.

이 외면 속에는 연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거의 다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낯부끄러움도 있을 거다.

그때 끝장을 봐야했는데도 억울한 울음소리와 바로잡자는 목소리를 능히 잠재울 만큼 훨씬 더 크게 작용한 힘 때문에 숨겨진 사건이다.

자신들을 향한 칼날이 다가 왔기에 이를 피하려고 은근슬쩍 담합하여 침묵을 유지한 결과 교묘하게도 자신들의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

그런데 똑똑하고 영리한 그들은 지극히 단순한 진리 2개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걸 간과했다.

과제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데도, 애써 못 본 체하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훨씬 더 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진리 하나.

또 시간이 진리와 정의의 편이라는 것.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보여도 흘러가는 시간이 수많은 것들을 바꿔버리는 묘수를.

꼭꼭 숨기며 미뤄놓아 외면당한 사건은 그동안 세상에 나가 그 억울함을 외치고 몸집을 키우면서 필사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라는 영상이 4년 동안 100만 번이나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을 줄 어찌 알았으랴!

아프다! 억울하다! 바로 잡으라! 진실은?

결코 해결하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드디어 반격할 기회를 잡았으니 이번 선거판일 줄 누가 알았으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신원되지 못한 억울함이 마치 다윗의 손에 들린 물맷돌처럼 되어 날아가 무시하던 그 힘들의 머리를 들이박고 돈좌시켜버린 것 같다.

그동안 2018년 11월부터 감게에 올린 글 230여개와 감리교도들의 댓글을 함께 엮어 정리해 왔는데, 총 5집 1,700여 페이지가 넘는다. 이 글들이 후일 감리교회사를 정리할 누구에겐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까지가 나의 할 일이란 생각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로 쓸데없는 논쟁에 휩싸여 선교열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의 일들이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혹여나 불편하신 분들께는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 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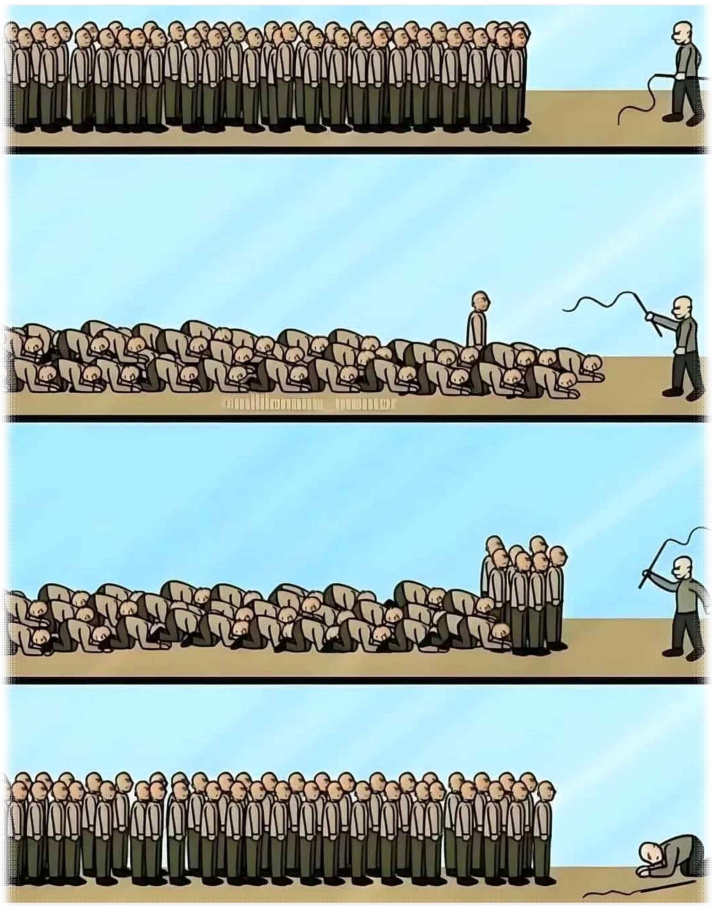
선거결과를 보며
봉제산 자락에서
장 광호 목사

- 관련 자료 목록 -

제 1집 : 서울남연회 사태 관련(2018.10 - 2019.06)
1. 개인 및 연회 3개 지방회 성명서
2. 강서동지방 목요기도회 기도문
3. 감리회 게시판 게시글 모음

제 2집 : MBC 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관련 감리교회 게시판 글 모음집
(2020.5.13. - 11.10)

제 3집 : MBC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관련 감게글 및 댓글 모음(3집)
(2020.11.10. - 2021.4.21)

제 4집 : MBCPD수첩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관련 감게 글 및 댓글 모음(4집)
-중부연회 새인천지방 연희교회 사태 관련 글모음 추가-(2021.4.21. - 2022.6.11)

제 5집 : 공의와 사랑을 향한 몸부림(서울남연회 사태 관련 감게 글 및 댓글 모음 제5집)
(2024.9.6 - 9.26)